

※ 아래 글을 읽고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말을 채워보세요.

겨울이 오면 찾아오는 걱정거리가 '집 앞 눈치우기'다. 여덟가구가 사는 빌라에 거주하는데, 빌라가 경사진 곳에 있어 눈을 치우지 않으면 차를 뺄 수가 없다. 사실 차도 없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내게는 급하게 눈을 치워야 할 이유는 없다. 그렇지만 이른 아침부터 누군가 눈을 치우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전날 늦게까지 작업을 했더라도 주섬주섬 옷을 챙겨 나가게 된다.

사실 눈 치우기 자체가 걱정 거리는 아니다. 아침잠을 조금 덜 자는 것일 뿐, 가벼운 운동도 되고 치우고 나면 뭔가를 해냈다는 뿌듯함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줬다는 보람도 느껴지기 때문이다.

어려운 건, 눈 치우기 자체가 아닌 빌라에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다. 이사한 첫 해 겨울에 눈 치우기를 몇 번 하고 나서 묘한 상황을 깨달았다. 나와 같은 프리랜서인 빌라 총무가 늘상 먼저 나와 눈을 치우면 그 소리를 들은 나 또는 다른 한 분이 나와 거든다. 그리고 나면 정작 눈을 치우기 위해 차를 빼주셔야 하는 분이 나타나서는 "수고하십니다" 한 마디 하고 간다. 반복되는 패턴이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어느덧 아침의 운동, 보람된 선의가 '호구짓'처럼 느껴지게 됐다. 그럼에도 나는 그해 겨울 눈 치우는 소리에 계속 나갈 수밖에 없었다. 나보다 10살 많아 보이는 총무를 도와주고 싶어 서였다. 나도 이사 오기 전 집에서 빌라 반상회를 하다 10월 가지고 다툼이 나는 상황을 못 지나치고 총무를 맡았다가 5년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이다. 호구가 되고 싶지도 않았지만 외면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았다.

지난해 12월, 상황이 이렇다보니 겨울이 되면 마음이 복잡하다. 주변에 조언을 구하자 어떤 분은 은덕을 쌓는다 생각하고 수행하듯이 하라고 하고, 어떤 분은 차를 가진 이들이 절박해져서 나설 때까지 모른 척하라고도 했다.

정답이 어디 있겠나. 공동의 일을 적절한 규칙을 통해 잘 나눠 가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람들을 움직인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며 군자가 못 되어서인지 옹졸한 마음을 지우기도 쉽지 않다. 그러던 차에 초등학교 5학년 조카가 들려준 조언이 나는 가장 마음에 들었다.

“ _____ ”

☞ Zola Guide 출처는 아래에 있음. 2~3개 정도의 가능한 답변들을 생각하는 것이 좋음.

눈 치우기 눈치 싸움, 5학년 조카의 사이다 조언 - 오마이뉴스

<https://news.naver.com/main/scrap/read.nhn?oid=047&aid=0002250640&mode=LSD&mid=sec&sid1=001&scrapGroupId=658&scrapItemId=206040&sortType=scrapDate>